

한국 독어독문학의 미래와 독일학연구

안삼환(서울대)

1

안녕하십니까?

이 모임은 “독일학 연구”에 대해서 공동으로 성찰해 보기 위해 계획된 여섯 번의 모임 중에서 그 도입부라 할 수 있는 첫번째 모임입니다.

우선 왜 이런 세미나를 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이름이 “독일학연구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행된 한국의 “독일학연구”의 성과를 점검하여 앞으로의 바람직한 연구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하는 노력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시도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자기 점검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들이 모두 일차적으로는 독어독문학도들인데다, 현재 우리 학문이 학내외에서 맞이하고 있는 위기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및 정보화 시대에 실용주의와 속도감이 증시되다 보니 인문학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 중에도 특히 우리 독문학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심각합니다. 국내외에서 배출된 많은 신진 독문학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에서의 교양 독어 강좌의 수강생들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경향입니다. 우리 독어독문학 분야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수도 격감하고 있는 추세여서 학문 후속세대의 존속마저도 걱정스러울 지경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당하게도 제2외국어를 제외시켜 버린 교육입안자들의 무지와 경솔 등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한

테로도 반성과 비판의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피할 수 없는 한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독어독문학은 어떤 궤적을 그려 여기까지 왔으며, 혹시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일련의 질문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으로 떠오르는 한 가지 물음은 “독일학 쪽으로의 궤도수정은 어떻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새삼 “독일학연구”를 재점검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 목적의 일부는 우리 학문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현재 상황과도 관계가 있을 듯 싶습니다.

2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외국어문학과는 경성제대의 <영어영문학 과>, <독어독문학과> 등의 모형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인들의 영향으로 외국문학은 언어학과 문학 연구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기이한 관념에 사로잡혀 ‘순수언어이론주의’와 ‘순문예주의’ 전통”¹⁾이 뿌리박히게 되었습니다. 각 외국어문학과에서는 이를테면 셰익스피어나 괴테의 인생관 또는 세계관을 탐구하느라고 “외국어 회화나 작문에 되도록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²⁾ 관행이 생겼고, 학생들도 회화나 작문에 열중하는 태도를 비천하게 여기거나 적어도 소홀히 하는 전통이 생겨난 것입니다. 심지어는 60년대말까지만 해도 작가와 문학작품을 배출한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탐구마저도 부질없는 관심 정도로 폄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괴테나 카프카에 대한 논문을 쓰고 학부나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조차도 독일의 역사나 독일사정에 대해서는 그 동안 비체계적으로 습득한 단편적인 지식만 지니고 있을 뿐, 독일이나 독일문화에 대한 통합적인 지식을 갖추지는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1) 李商燮: 지역연구로서의 문학연구 - 무슨 문제가 있는가? 미국연구를 하나의 사례로 하여, 실린 곳: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1996/ 11. 8~9), 10면 분량의 독립 리포트, 2면.

2) 같은 곳.

3

물론, 우리는 가난과 사회의 물이해라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한국의 독어독문학을 지켜오신 선학(先學)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독일의 시인 작가들에 대한 그분들의 연구와 강의를 통해 우리 독문학도들이 - 비록 현실 적용력은 약하지만 -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인문성을 갖춘 교양인, 또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우리사회의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망각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용성과 가시적 업적을 최선의 잣대로 삼는 현대 사회에서 계속 자긍심을 지니고 이런 보이지 않는 성취를 이루고 지켜나간다는 것은 성직자의 신념과 고행만큼이나 득달하기 어려운 수련이며, 더구나 우리의 후진들에게 이런 수도자적 자세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그들에게도 계속 이런 고행의 길을 걸어가도록 권유한다는 것은 작금에 이르러서는 자난한 노릇이 되어 버린 듯합니다.

종래의 어문학(Philologie) 중심의 교육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이런 현실에 그 큰 원인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독일의 문학 작품과 문예학 이론을 힘들여 수용하고 애써 소화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이와같이 고차원적 작품들과 수입된 이론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현실과 매우 거리가 먼 것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은 항상 있어왔고 지금도 상존한다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외국독문학 Auslandsgermanistik>을 아주 그 명칭까지도 바꾸어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의 독문학 Germanistik in anderssprachigen Ländern und Kulturen>³⁾으로 고쳐 불러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것도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학문적 요청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땅에서 나온 최신 작품들과 거기서 논의되고 있는 최신 이론들을 수입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수입하느라고 시간과 노력만 들었지 우

3) Vgl. Günter Blumberger u. Gerhard Neuner(Hrsgg.): Reformdiskussion und curriculare Entwicklung in der Germanistik. Dokumentation der Internationalen Germanistentagung des DAAD, 24. - 28. Mai 1995, Universität Gesamthochschule Kassel, S. 5(Vorwort der Herausgeber).

리 학생들이 과연 거기서 얼마나 현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얼마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독일인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독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⁴⁾라는 질문부터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답에서 출발하는 것이 독어독문학을 한국 학생들에게 보다 흥미있고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우리는 괴테와 카프카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강의를 계속 해나가는 한편, 이제 우리 독어독문학도 우선은 학생들의 장래 생활 또는 직업과 연관될 법한 새로운 교양 및 전공 강의를 개발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독문학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들은 강의과목과 교육현장에서 큰 융통성을 발휘하여 요즘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 나갈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독일생활에 적합한 행동양식>⁵⁾을 가르쳐 주는 <행동지향적 독일어>⁶⁾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중급 독일어 강좌를 “독일어로 읽어보는 고전음악가들의 생애”, “독일어로 읽는 민족주의의 영광과 참상”, “통독 전후사정 원강” 등 학제적 관심을 끌 수 있는 강의들로 개발해 나간다면, 우리말로 강의하는 전공과목으로 “리얼리즘, 그리고 루카치와 브레히트의 입장 차이” 따위를 개설해서 타과 교과목과의 연계를 맺으려는 노력 등이 그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 독어독문학은 다른 분야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며, 학제적 협력이 가능한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서 대학에서 사랑

4) 鄭相俊: 미국학의 이론과 실제, 실린 곳: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1996/ 11. 8'9), 8면 분량의 독립 리포트, 1면: “미국학은 무엇보다도 ‘미국인은 누구인가?’ 또는 ‘미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답해보려는 시도이다. 그러므로 미국학은 학제적인 연구의 한 분야이다.”

5) Vgl. Masako Sugitani: Reformdiskussionen der Deutschdidaktik in Japan, in: Günter Blumberger u. Gerhard Neuner(Hrsgg.): Reformdiskussion und curriculare Entwicklung in der Germanistik. Dokumentation der Internationalen Germanistentagung des DAAD, 24. - 28. Mai 1996, Universität Gesamthochschule Kassel, S. 215-228, hier: S. 227: „zielkulturadäquate Handlungsmuster“.

6) Vgl. ebda.: „die Handlungsorientierte Landeskunde“.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미래의 한국 독일학은, 우리 독어독문학도들이 독일학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독일어를 잘 구사할 줄 알 뿐만 아니라 독일학의 연구 대상인 독일어권의 문화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들 독문학도들의 주된 몫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이 독일학 쪽에 기대면서 우리 자신의 역량을 보완 확충해 나가는 데에 아마도 우리 독어독문학의 활로와 미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가 다같이 지혜를 모아 의견을 모으고 진지하게 토의해 보려는 까닭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독문학도들이 끊임없이 불행을 딛고 살아온 것은 비단 어제 오늘날의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고난 속에서 끈질기게 견디며 활로를 모색해 온 학문적 내력과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힘과 지혜를 합해 오늘의 역경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십시오. 불행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져서 마침내는 대수롭잖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독일학연구 모임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제에 대한 토론

황윤석: 발제문에서 기본 방향은 드러나고 있으나 독일학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태호: 모대학에서 독어독문학과를 독일학과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관련 학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행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독일의 역사 철학 경제 등을 독일학과에서 수용할 경우 관련학과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황윤석: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자면 학제적 통합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 안에서 독일학을 수용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순수 어문학에 지역학이나 실용적인 측면을 도입할 경우 그 한계선을 어떻게 그을 것이냐 라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학을 도입할 때 독일사나 독일 경제를 전공자처럼 강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독어독문학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겠지요. 따라서 강좌를 “독일 역사”나 “독일 철학”이란 명칭으로 개설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독문학자나 독문학도가 담당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신태호: 독문학의 배경으로서 독일의 역사나 철학 또는 경제 등을 알 필요가 있기는 있지요.

안삼환: 한국의 독문학도들은 독일의 역사학, 경제학, 철학, 그리고 우리의 국문학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유관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지요. 제가 발제문에서 언급한 “행동지향적 독일 연구 die handlungsorientierte Landeskunde”란 학생들에게 텍스트(일례로 독일인들의 약속 관습에 관한)를 준 다음 그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지적하여 문화의 차이점까지도 부각시키는 식의 독일어 학습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일로 유학을 갈 학생들에게는 독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가르쳐야 할 것이고, 음

대생이나 음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어 강좌에
서는 독일의 음악이나 음악가와 관련된 텍스트를 다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독문학자가 음대 교수가 될 필요는 없지요. 독일
학을 수용하여 음악 전문가나 독일 역사학자를 양성하자는 것이 아
니라, 다른 학문과의 거리를 좁히는 동시에 상호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황윤석: 그 논의는 주로 교양 독일어를 수강할 학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전공학생이 대상이 될 경우에는 어떻
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리: 홍성광, 황승환]